

런던 시장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영국의 각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세이버리 시장님의 좋은 말씀과 융숭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경제체제와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런던은 인류문명의 진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이곳에서 시작된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으로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런던은 금융과 무역의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첨단 조화 속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 온 런던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귀빈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국정의 각 분야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야말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채택 여부는 지난 세기 국가간 번영과 쇠락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보다 성숙한 시장경제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었으며, 6·25전쟁으로 피폐한 농업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반도체, 조선,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시작된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문제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생명인 자율성과 시장경제 원리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관행도 생겼습니다. 왜곡된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성장도, 진정한 경쟁력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97년 외환위기까지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시장을 대폭 개혁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는 더욱 투명해질 것입니다.

금융부문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300여개에 달하던 금융기관이 1,300여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금융권 부실채권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금융부문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건전하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새로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이 근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년 동안 어떤 정치인도, 기업인도 부정한 정치자금의 족쇄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러한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결

국 정치자금과 관련한 법이 대폭 강화되었고, 올해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졌습니다. 조선의원 비율이 63%에 이르는 선거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치인과 기업인간의 부정한 거래는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만큼 투명해지고 정경유착에 의한 불공정경쟁은 설 땅을 잃었습니다. 이제 기업의 성패는 오로지 효율과 창의력에 의해 판가름나는 시장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바탕 위에 노사관계도 빠르게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파업이 줄어들고 노사분규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되는 방식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방적 통상국가인 한국은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열려 있는 자본시장을 가진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총액의 4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의 시장점유율도 30%에 가깝습니다.

수입장벽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늦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자유무역협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의 협상이 막 타결되었으며, 일본·아세안·유럽자유무역연합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베스트 코리아'를 설립해 유치 창구를 단일화하였습니다. 지금 그 책임자는 영국인인 알란 팀블릭 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0월 외국인투자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장경제의 성숙을 통해 영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진 블레어 총리와외 정상회담에 대해 나는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0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간 교역은 가까운 장래에 1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제품들은 한국에서도 명품으로 그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양국간 투자는 지난 몇 년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998년 8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에 대한 영국의 투자는 현재 34억 달러로 네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규모나 협력 가능성을 볼 때 훨씬 더 확대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과 물류 인프라,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금융·물류·R&D 허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 우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를 유치해서 2020년까지 아시아 3대 금융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분야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원합니다.

나는 이번에 한국에 투자한 영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생명공학,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체결된 케임브리지 대학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간의 연구협력약정에 따라 내년에 설치될 공동 R&D센터는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일 전 칠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나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6자회담의 조기개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만난 중국·일본 정상과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북한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회원이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19세기 말 한국을 네 차례나 방문해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당시 주변 강대국의 각축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던 우리 국민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한국인은 올바른 제도와 행정 시스템이 서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번영할 국민이다.”고 예견했습니다.

1세기가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로 일어섰습니다. 영국인은 늘 한국인을 바로 이해하고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용기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국 국민께 우리 국민이 전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두 나라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국민의 우정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영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